



특집 _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황... "각국 다양한 삶의 경험 함께 나뉨"
 재외언론의 공공외교 역할 모색... '2024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열려
 정책 돋보기 _ 재외동포청, 국제통화료 부담 없는 재외동포 민원 상담 서비스 개시
 "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재외동포청 법령 개정해 시행
 재외동포청, 동포 정착지원 등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이슈 & 화제 _ '물리학 박사' 독일 입양 성경주씨, 맥킨지 프랑수아서 컨설턴트 활동
 85세 사할린 동포 할머니 "고국 품 따뜻하고 환대에 감격"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 비준 앞두고 입양의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발걸음에 동참을

‘헤이그’ 하면 바로 ‘헤이그 특사’가 떠오를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세계적으로는 가족·아동 보호, 민사소송, 상법 등 국제사법 분야의 사법·행정 협력 기구로 자리매김한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의 총회,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상설사무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는 약 40여개의 협약을 관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에 1997년 8월 가입하여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개의 협약을 비준, 이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국가, 106개국 이 비준한 것은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이다. 대한민국은 2013년, 이 협약에 서명해 2025년 비준을 앞둔 상황이다.

2023년 7월 18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공포됐다. 이 두 개의 법률은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의 이행법이기도 하다. 제·개정된 입양법이 시행되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 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민간 위탁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입양정책위원회 운영의 핵심인 위원회 사무국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설치돼,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국내 입양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의 국제 입양의 각 핵심 절차를 수행한다. 입양신청 창구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줄고, 표준화된 안내와 교육 제공으로 예비 양부모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국가를 이주하는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아동, 양부모의 기록과 적격성을 상호 확인·보증하고, 입양 후 아동 적응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국가 간 입양 절차도 마련된다. 그동안 보호 대상 아동에만 국한했던 국가의 입양 책임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절차별 실무가이드 작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무 이행을 위한 준비는 물론, 입양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던 모든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입양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입양인들은 입양정보공개 청구 시에 더 이상 기록을 찾아 헤매지 않고 아동권리보장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약 25만 건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보존하고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면 입양기록관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 입양기록관 건립에 소요될 예산과 운영 인력의 확보를 위해 해외입양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개편된 입양제도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기에 맞추어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도 비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025년에는 헤이그가 그 옛날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 특사를 파견한 장소를 넘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다짐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도시로 기억될 바란다. 대한민국 아동복지에서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변화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민간기관, 학계 등의 협력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에 독자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 **창**





- 02 창을 열며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 비준 앞두고
입양의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발걸음에 동참을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04 특집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상황... "각국 다양한 삶의 경험 함께 나눠"
재외언론의 공공외교 역할 모색... '2024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열려
- 06 정책 돋보기 재외동포청, 국제통화로 부담 없는 재외동포 민원 상담 서비스 개시
"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재외동포청 법령 개정해 시행
재외동포청, 동포 정착지원 등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08 이슈 & 화제 "내 모습 통해 친부모를 짐작하고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85세 사할린 동포 할머니 "고국 품 따뜻하고 현대에 감격"
- 10 한민족 공감 국내외 고려인 소통 기반 만든다...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출범
아프리카·중동 한인들, 6년 만에 '평화의 샘물' 사업 재개
- 12 글로벌 코리아 재미작가 우일연, 미국 최고권위 풀리처상 도서부문 한국계 첫 수상
'깜짝 돌풍' 이민 1.5세 정치현 박사, 내년 볼리비아 대선 재도전
영국서 한인 부시장 탄생... 뉴몰든 방문 찰스3세 안내 지방의원
- 14 인터뷰 브라질서 '팟캐스트' 제작 유강희 대표 "한인 정체성 전파 노력"
- 15 주목! 차세대 LA경찰국 한인 수사관 "내 가족 지키다는 초심 잊지않고 일해요"
- 16 지구촌 통신문 한국계 미군 찬송곡 '한국전 영웅' 고 퍼켓 대령 미국의회서 추도식
- 18 뉴스 속으로 반크, 한국 발전상과 재외동포 모국 기여 영어·일본어 홍보 외
- 20 문화유산 '부처님 계신 곳', 영축산과 통도사
부처 진신사리 봉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22 OKA 뉴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중국 동포 민생현장 방문 외
- 24 동포 캘린더 "해외서 활약하는 21세기 장보고 찾아요"... '한상 어워드' 공모 외
- 25 기고문 한인 차세대 정체성 함양에 한국어가 중요한 이유
한민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부교수 겸 아시안국제영화제 위원
- 26 재외동포청 공지 고려인 동포 청년·청소년 '한국어해과정' 참가자 모집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황 “각국 다양한 삶의 경험 함께 나눠”

19개국 참가자들, 한국 발전상 해외 교과서 수록 재외동포청 사업에 공감대



1. 5월3일 재외동포청의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폐회식에서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분야별 토론 조별 대표를 맡은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조나단(미국), 김안드레이(카자흐스탄), 김민진(영국), 이상엽(미국), 전준홍(미국) 씨
2.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 왼쪽부터 에린 조 변호사, 라브렌유크 올레그 씨, 박세정 재영한인의사협회 부회장, 정준 변호사, 동우석 씨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5월 3일 폐막했다.

4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행사에는 19개국 68명의 차세대 리더가 참가해 모국을 이해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회장을 지낸 에린 조(한국명 조애린·39) 변호사는 “각국에서 온 한인을 만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더 알고 다른 한인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는 고려인 4세 라브렌유크 올레그(41) 씨는 “유럽 출신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내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회 기간에 의료계 외에 다른 직업군과 대화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세정(32) 재영한인의사협회 부회장은 “입양인, 다문화가정, 고려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인의 뿌리는 모두 한국”이라며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국무총리 공관 방문, 산업 시찰, 전통문화 체험, 주제별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은 폐회식에 앞서 글로벌 인재 사업 설명회, 통일정책 설명회, 분야별 조별 토론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안보홍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글로벌 인재 사업 설명회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 정부와 공공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황태희 통일부 국제협력국장은 통일정책 설명회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청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조력자를 찾고, 차세대 네트워크를 지속해 넓힐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지역별 차세대 대회(리유니온) 등을 열고 재외동포청의 차세대 육성 정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폐회사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차세대 한인 리더를 응원한다”며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

재외언론의 공공외교 역할 모색 ‘2024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열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한국 발전상 홍보에 동포언론도 앞장서 달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거주국과 동포사회에 알리기 위한 재외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는 ‘제24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공공외교와 재외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60여명의 동포 언론인이 참여했다.

개막식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 이구홍 전 동포재단 이사장, 조릉제 재외동포포럼 회장, 정광일 재외동포유권자연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익 함평군수는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기철 청장은 “대한민국은 과거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유럽연합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동포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글학교에서의 교육과 외국 교과서 수록을 위한 재외동포청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포 언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청장은 또 동포청 설립 이후 재외동포 정책 기조의 변화, 동포청의 미션·비전 및 6개 정책목표 그리고 업무추진 방식 등을 소개했다.

주요 성과로는 한글학교 교사 봉사료·연수 및 차세대 모국 연수 확대,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의 재외동포 교육용 교과서 수록, 소외 동포 국내 초청, 해외 위난 상황시 재외동포 지원 예산 마련, 재외동포 인천공항 입국 시 내국인 통로 사용 등을 꼽았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 20개국 동포언론인 60여명 참가

이 청장은 “문턱 낮게 소통하며 동포사회 민생과 현장을 살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공공외교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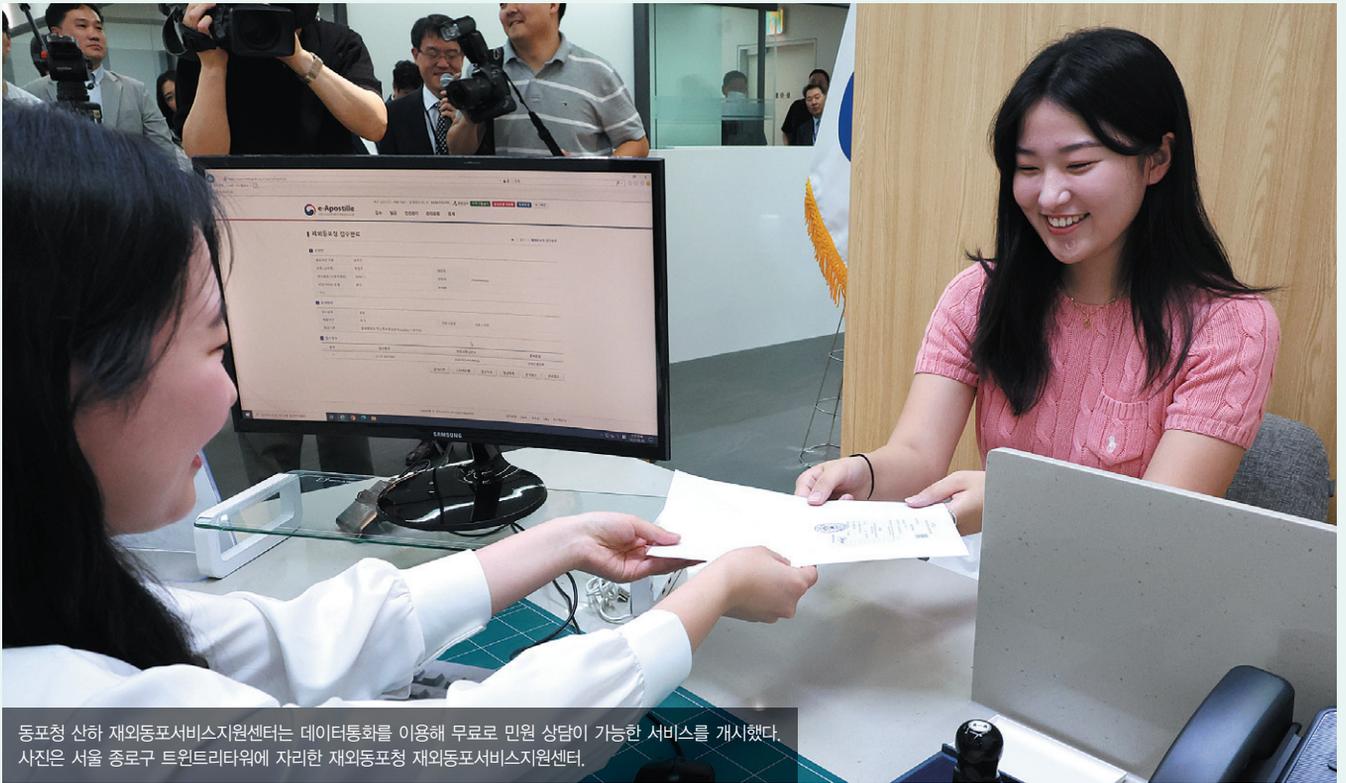
고 손톱 및 가시를 빼드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외동포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동포청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그 중심에 있는 동포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월 3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전북 전주와 전남 함평·담양·장성 및 광주광역시 등을 방문해 다양한 지역 관광·산업·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한 취재를 하며, 동포 언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협회 총회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전주시,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전남관광재단, 세계한인무역협회,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세계 40여 개국 180여 개의 한글매체가 회원사로 가입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장**

재외동포청, 국제통화료 부담 없는 재외동포 민원 상담 서비스 개시

데이터통화 가능... '영사민원24' 도 '동포 365 민원포털' 로 개편



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데이터통화를 이용해 무료로 민원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진은 서울 중로구 트윈트리타워에 자리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별도의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는 이날부터 데이터통화(웹콜)를 통해 민원 상담을 받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동포청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0404)'를 설치해 국내외 체류 재외동포에게 매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국제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상담 서비스 개시

했고, 이번에 무료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추가했다.

동포청은 하반기 중에 온라인채팅(웹챗) 채널도 추가해 더 편리하게 민원콜센터를 이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기예다가 기존의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로 전면 개편했다.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문의·신청하도록 민원 포털을 구축했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동포들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민원 대응을 비롯해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재외동포청 법령 개정해 시행

재외동포청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혼인에 의한 연고 이주, 취업의 무연고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의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경우도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포청은 우선 시행규칙에서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늘렸다. 보장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 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도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해외 이주 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 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해외 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



재외동포청장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하여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했다.

이기철 청장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제도의 미비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시정해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 동포 정착지원 등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재외동포청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정책 설명회를 처음으로 최근 개최했다. 국내 체류 동포 증가 등 새로운 이슈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인천 송도 소재 동포청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인천, 경기 등 9개 광역단체 및 제천 등 10개 기초단체 동포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재외동포정책을 소개했다. 또 앞으로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동포청과 지자체가 협업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자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인구감소 극복과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고려인의 이주 정착을 추진 중인 제천시 사례가 소개됐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국내 체류 동포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원 대책을 논의한 점이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내 모습 통해 친부모를 짐작하고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물리학 박사’ 독일 입양 성경주씨, 맥킨지 프랑스서 컨설턴트 활동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차 방한한 미리암 크롤(한국명 성경주) 맥킨지 프랑스 경영 컨설턴트.

“**친** 부모에게 환상이 있는 입양인들이 많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다르게 접근하게 됐어요. 지금 내 모습을 통해 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독일 입양 한인 미리암 크롤(한국명 성경주·45) 씨는 “거울 앞에 서면 친부모의 유전자가 내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씨는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젊은 인재를 초청해 한인의 정체성을 갖추고 리더의 역량을 높이고자 개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그는 “과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아프리카 수단과 비슷하던 시절 모두가 생활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며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을 선택한 건 친모의 희생일 수도 있다. 슬프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입양이든 행복한 시작은 없고, 모든 입양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다”며 “물리학자로서 환상을 좇지 않고 논리적으로 사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편이다. 이 부분이 다른 입양인들과 다른 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낳고 한인 정체성과 모국에 관심”… 입양인들과 활발히 교류

1979년 12월 20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처음에 경북 경주시청에 맡겨졌고, 대구 백백합보육원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이듬해 5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슈투트가르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벨기에 뢰번 가톨릭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엑센츄어, KPMG, 아바나드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 프랑스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그는 외모 차이 등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입양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주눅 들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남과 다른 자신만의 특별함이라고 받아들였다.

가끔 친부모 생각이 나도 적극적으로 뿌리 찾기를 시도하지 않았다. 친가족의 평온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했다. 친가족이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게 그의 마음이다.

그는 프랑스 최대 규모 입양인단체 ‘한국뿌리협회’와 독일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인 한국독일입양인협회(KADeV)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이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계 독일인으로서의 독특한 다문화 경험과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같은 DNA를 공유하는 입양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내가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힘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

85세 사할린 동포 할머니 “고국 품 따듯하고 환대에 감격”

‘영주귀국’ 60명 동해항 입국... 최영한 동포청 차장 “조국은 늘 여러분 곁에”

“**모**국 품이 이렇게 따듯하네요.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님의 소원을 대신 풀어주는 거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자손 등 60명이 5월 11일 꿈에도 그리던 고국 품에 안겼다. 휠체어를 타고 입국한 최고령의 황순남(85) 할머니는 고국 땅을 밟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으로 총 261명을 선정했다. 4월 27일 16명이 입국한 데 이어 이번엔 60명이 2차로 단체입국을 했다. 나머지 185명은 개별입국한다.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는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사할린 동포를 따듯하게 맞이했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배를 기다렸다가 입국장에 들어가 황순남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밀고 환영식장에 나타났다.

최 차장은 환영사에서 “하늘길이 막혀 24시간을 여객선에서 보내시며 오시는 동안 고향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셨을지, 또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며 “홀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시도록, 이제부터 조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다”고 위로했다.

황 할머니는 “따듯한 환대를 받으니 지난 세월 잊혀진 존재로 살아온 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라며 “진짜 모국의 품으로 돌아온 게 실감이 난다”고 감격해했다.

지난해 출범 후 처음으로 치른 재외동포청의 환영 행사에는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등도 자리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5월 11일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영주입국 환영식. 사진 왼쪽이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가운데가 최고령 영주귀국자인 황순남 할머니.

들은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으로 이주했거나 태어난 이들과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국내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들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한적십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할린 교포 2~3세 모국 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장**

국내외 고려인 소통 기반 만든다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출범

초대 이사장에 채예진 미디어사람협동조합 이사장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출범식 참석자들

국내외 고려인들 간 소통 기반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려인 동포들의 단체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KGN)가 출범했다.

KGN은 4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발족식을 갖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밝혔다.

KGN은 국내외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와 연계 및 연대함으로써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교류 등을 주관 및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약 50여명이 KGN에 참여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되는 한글 신문 고려일보의 한국특파원인 채예진(52) 미디어사람협동조합 이사장이 KGN 이사장을 맡았다.

고려인 적응 돕기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

고려인 동포 4세인 채 이사장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 흥범도기념사업회 이사, 제천시 동포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KGN은 앞으로 한국 문화를 보급하고 고려인의 적응을 돕기 위

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 전통 공예 체험, 한국 음식 및 음악 강의 등이 포함된다.

또 고려인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학업 지원, 학습 자료 제공, 학업 상담 등을 통해 고려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고려인 인권 보호 및 홍보 활동도 진행

KGN은 고려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인권 보호 및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인권 교육, 인권 위반 사례 조사 및 보고,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외 고려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문화 교류, 역사 탐방, 국제 협력 프로젝트, 국제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GN 관계자는 "고국으로 귀환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착지원 활동을 하고,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중동 한인들, 6년 만에 ‘평화의 샘물’ 사업 재개

아중동한인회·한상총연 임원회의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적극 홍보”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중심이 돼 추진한 ‘평화의 샘물’ 사업이 6년 만에 재개된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 오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및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회장 김점배)는 지난 5월 2~3일 전남 장흥군 JNJ리조트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평화의 샘물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임원회의에는 김 회장과 전상호 사무총장(시리아한인회장), 심현섭 전 쿠웨이트한인회장, 정해권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한인회장, 최경열 전 마다가스카르한인회장, 김부진 전 나이지리아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샘물 개수식은 12월 중 추진할 계획

김점배 회장은 “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물을 공급해 아프리카 지역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열악한 지역의 한인회로부터 신청받아 장소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중동한인회총연 및 아중동한상총연 측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월 중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사업 대상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샘물 개수식은 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2017년 12월 탄자니아한인회와 함께 평화의 샘물 사업을 추진해 이듬해인 2018년 2월 탄자니아의 초등학교 2곳에 샘물을 선물했다.

이후 말라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우물을 파는 사업을 이어가 2018년 기준으로 8개국, 20개 지역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중동한인회총연 및 아중동한상총연 정기총회

줬다. 그해 2018년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한인회의 모범 운영사례로도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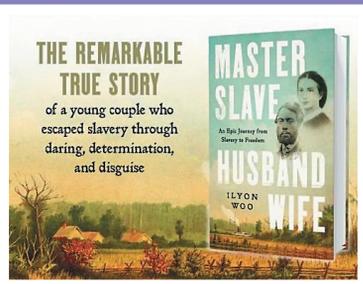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높이는 계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동안 사업이 중단됐었다.

아중동한인회총연 및 아중동한상총연은 또 오는 6월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각국 한인들이 현지에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점배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성공적인 만남이 되길 바란다”며 “재외동포들은 한국 알리기를 더욱 열심히 할 것이고, 정상회의 기간 중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은 각국 정상 등이 방한할 때 공항에서 환영 인사를 하는 것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

재미작가 우일연, 미국 최고권위 풀리처상 도서부문 한국계 첫 수상 논픽션 ‘주인 노예 남편 아내’… 전기 부문서 공동수상자 선정



풀리처상을 수상한 우일연 작가(위). 우일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 풀리처상 선정위원회 제공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논픽션 책이 미국 최대 권위를 가진 풀리처상을 받았다. 한국계 인사가 도서 부문에서 풀리처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풀리처상 선정위원회는 5월 6일 '주인 노예 남편 아내' (Master Slave Husband Wife)를 쓴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를 전기(傳記) 부문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

우 작가는 미국 국적의 한인 2세로,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그의 부친은 환기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설계한 재미 건축가 우규승씨다.

'노예 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이다.

부부 중 아내인 엘렌은 병약하고 젊은 농장주로, 남편인 윌리엄은 엘렌의 노예로 각각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까지 이동했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집필, 유명해졌다.

1917년에 창설된 풀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언론 부문과 도서, 드라마·음악 등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한국계 사진 기사가 언론 부문에서 풀리처상을 수상한 적은 있지만 도서, 드라마·음악 부문에서 한국계 인사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깜짝 돌풍' 이민 1.5세 정치현 박사, 내년 볼리비아 대선 재도전 2019년 첫 출마서 3위 기록… "자유민주주의 가치 전파하고 싶어"



"볼리비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고 싶어요. 내년은 볼리비아 독립 200주년이자 한국과 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인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도전에서의 실패를 보완해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2019년 볼리비아 대선에서 약 9%의 득표율을 기록해 깜짝 돌풍을 일으켰던 이민 1.5세 정치현(54) 박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대선 도전에 대한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정 박사는 2019년 기독교민주당(PDC) 후보로 처음 볼리비아 대선에 도전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는 “볼리비아는 집권 여당을 제외하면 야당만 10개”라며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1 대 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박사는 선교사였던 아버지 정은실 볼리비아 기독교대(UCEBOL) 총장을 따라 12살 때인 1982년 볼리비아에 이민 가 볼리비아 국적을 얻었다. 현재 목사 겸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서 한인 부시장 탄생… 뉴몰든 방문 찰스3세 안내 지방의원 ‘현직 간호사’ 박옥진씨… 런던 킹스턴 자치구 부시장에

영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인 부단체장이 탄생했다.

런던 남서부 킹스턴 자치구(borough, 자치도시) 의회는 5월 14일(현지시간) 밤 연례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계 박옥진(영어명 엘리자베스 박·57·자유민주당) 구의원을 부시장(deputy mayor)으로 선임했다.

런던 32개 자치구 중 하나인 킹스턴은 유럽 최대의 한인타운인 뉴몰든이 있는 인구 17만명의 자치구로, 박 의원의 지역구는 뉴몰든 남쪽의 올드몰든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킹스턴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회(council) 의원들이 시장을 호선한다. 시장을 두지 않고 집행위원장이 집행내각을 구성하는 지역도 있다.

박 부시장은 시장으로 선출된 리즈 그린(자민당) 의원과 함께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킹스턴에서 시장은 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중점을 두는 가치에 따라 지역내 자선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박 부시장은 1996년 영국 유학길에 올라 골드스미스대에서 예술행정·문화정책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영국에 정착해 지내면서 간호학을 공부했다. 구의원 당선 이후에도 현직 정신과 간호사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찰스 3세 국왕이 뉴몰든 한인타운을 방문했을 때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브라질서 ‘팟캐스트’ 제작 유강희 대표 “한인 정체성 전파 노력”

수제맥줏집 사장서 한인 이민사 기록용 ‘교포캐스트’ 제작자 변신

“브라질 한인 1.5세 및 2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사를 기록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교포캐스트’ 진행자 겸 제작자 알렉스 유(한국명 유강희·41) 솅박스 대표는 5월 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기자와 만나 “모국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젊은 인재를 초청해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리더의 역량을 높이고자 개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차 최근 한국을 찾았다.

ESPM대학에서 언론광고학을 전공한 유 대표는 16년 동안 상파울루에서 수제맥줏집을 운영했다. 가게를 오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우연히 맥주 관련 주제를 다루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되면서 팟캐스트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고, 브라질도 팬데믹 확산 물결을 피해 가지 못했다. 2022년 6월 업종 전환을 고민하던 중 취미로 팟캐스트를 시작한 그는 이제 스튜디오를 차려 외부 의뢰가 들어오면 공간대여 및 영상 제작 등도 한다.

“젊은 세대, 이전 세대와 대화하고 서로의 경험 공유할 필요 있어”

유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수위가 강해졌고, 폭력 강도도 세졌다”며 “영미권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관한 콘텐츠가 많이 등장했다. 브라질에서도 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지역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도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팟캐스트 제작하는 알렉스 유(한국명 유강희) 솅박스 대표.

관’ 형태를 구상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자는 기준에 맞춰 출연자를 섭외하고 녹화했다. 방송 이후 많은 청취자가 다양한 출연진을 제안해왔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를 통해 선보인 교포캐스트는 현재 유튜브 형태로 함께 운영된다. 2023년 기준 브라질 거주 한인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다. 아직 교포캐스트의 존재를 모르는 한인이 많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는 “브라질 한인 이민사는 1962년 12월에 시작됐다. 이민 생활 첫 60년간 조부모 및 부모 세대의 목표는 생존이었다”며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대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계속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한인들의 이야기와 인생 궤적에 공감하기를 바란다”며 “각자의 삶을 더하면 더 멋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포캐스트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

LA경찰국 한인 수사관

“내 가족 지킨다는 초심 잊지않고 일해요”

최종민씨, 한인경찰공무원협회 등 동포 커뮤니티서 적극 활동

“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수료할 때 한 선배가 ‘가족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경찰이 왔으면 하는지 생각하며 일하면 된다’고 조언했었죠. 내 가족을 지킨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출신 한인 저스틴 최(한국명 최종민·31) LA경찰국(LAPD) 수사관은 5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기자와 만나 “작은 힘을 보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사관은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젊은 인재를 초청해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리더의 역량을 높이고자 개최한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2016년 LAPD 경찰관이 됐다. 약 1만명의 경찰 구성원 가운데 한인은 약 300명 정도다. 순찰 등 일반 경찰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7월 부서를 옮겨 총기사건, 납치, 스톱킹, 테러 위협, 증오 범죄, 살인미수 등 강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어릴 적 미군 엄마 따라 한국서 4년 거주 “한인으로서 자부심 있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절에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자 한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과 사건 발생 시 대응법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최 수사관은 “열심히 일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마주할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는 경찰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이지만 한시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배경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4살 때 미 육군 소속으로 용산 미



저스틴 최(한국명 최종민) 미국 LA경찰국(LAPD) 수사관이 5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군기지로 발령 난 엄마를 따라 4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국제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배웠다.

최 수사관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매년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며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고,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은 가치가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수사관은 “한인이라는 정체성과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 한국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각국에서 온 한인들과 생각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의 차이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



1

한국계 미군 찬송속 ‘한국전 영웅’ 고 퍼켓 대령 미의회서 추도식

한국전 참전자로는 첫 미 의사당 안치·조문 ‘예우’... “용기·명예의 모범”

“그의 용기와 자기희생은 후대 군인의 마음에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공화당 미치 매킨널 상원 원내대표)

한국전쟁에 참전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최고 훈장을 받은 고(故) 랠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추도식이 4월 29일 미국의 사당에서 거행됐다.

미국 여야의 지도자들이 자유 수호를 위한 고인의 영웅적 행위와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해 랠프 대령의 마지막 길에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이다.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매킨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에이미 클로버서(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 한국계인 매릴린 스트리클랜드 하원의원(민주·워싱턴) 등

과 함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유골함과 성조기가 의사당 2층 중앙의 원형 홀인 로툰다 중앙에 자리한 뒤 미국 하원의 마가렛 키번 목사의 기도로 추도식이 시작됐다. 이어 매킨널 원내대표와 존슨 하원의장이 추도사로 고인을 추모했다.

미 육군군악대 에스더 강 하사 자원해 노래

매킨널 원내대표는 고인이 제 8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한국전쟁 때 싸웠던 205고지 전투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10대 1로 수적으로 열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레인저가 길을 이끈다(Rangers

lead the way)'는 모토를 완전하게 구현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라면서 "그는 아마 임무를 완수하고 병사들을 명예롭게 이끌기 위한 힘과 결의, 용기를 기도했을 것이며 그 기도는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퍼켓 대령의 모토가 '그곳에 있어라'(Be there)였다 고 소개한 뒤 "(이는) 상황이 어렵거나 춥고 비가 와도,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쏘도, 음식이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면서 "그는 1950년 11월 추운 날 조국과 동료 병사들을 위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추도사에 이어 상원과 하원 지도부,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헌화하고 조문했다. 미 육군 군악대 '퍼싱즈 오운'의 에스더 강 하사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In the Garden)을 부르면서 고인의 넋을 기렸다. 키번 목사의 축도로 추도식이 끝난 뒤 고인의 유골함이 이날 오후 6시 의사당 밖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일반인의 조문도 허용됐다.

서울 태생의 강 하사는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밴드가 추도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생전 퍼켓 대령에 명예훈장 수여

의회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문하는 행사(Lying in State)는 미국 전·현직 대통령, 상·하원의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최고의 예우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가운데 미국 의사당에서 조문 행사가 거행된 것은 고인이 유일하다.

의회 조문 행사에 앞서 한국전쟁참전기념비재단(KWVMF)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헌화식을 개최했다. 의회 명예훈장협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샌포드 비숍 하원의원(민주·조지아)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 무공 훈장인 태극무공훈장 수여

한국전 참전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였던 고인은 4월 8일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창설된 제8 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임명된 뒤 파견됐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을 실행했으며 고인이 이끈 제8 레인저 중대는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면서 북진 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인은 1950년 11월 중공군에 맞서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진지를 6차례에 걸쳐 사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3차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고인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수훈식에는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고인은 2023년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무공 훈장인 태극무공훈장도 받았다. **한**

강병철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2



3



4

1.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4월 29일 미국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고(故) 랭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 조문 행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 고(故) 랭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을 추모하기 위한 헌화식이 4월 29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열렸다.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6·25 참전 용사 랭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25일 랭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반크, 한국 발전상과 재외동포 모국 기여 영어·일본어 홍보

전 세계 교과서 집필진 대상 한국 발전상 홍보 동영상 제작해 유튜브에 소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700만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를 홍보하는 영상을 영어와 일본어로 제작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 세계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기 위해 개설한 영문 사이트에 이 영상을 추가했다.

반크는 우선 영어로 제작한 한국 발전상 관련 영상을 전 세계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와 외국인 교사에게 홍보하고, 이 내용이 현지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국제여론 조성에 나섰다.

1960년 한국은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는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성장한 내용을 강조했다.

2023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세계 2



반크에서 활동하는 미국 청년들이 한국 발전상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다.

차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크 관계자는 “한국인의 열정과 노력 및 희생 등을 통해 이루어낸 전례 없는 정치·경제 발전상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각국 교과서에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소재이며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미국 청년이 전 세계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국 발전상을 홍보하는 동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에 소개했다.

이라크서 전사한 미국 한인 1.5세 문재식 하사 추모 다리 생겼다

호건 의원, 문 하사 이름 딴 다리 명명 법안 발의하고, 주 상·하원 통과 위해 노력

2006년 이라크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전사한 한인 1.5세의 이름을 딴 다리가 생겼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 미들타운 타운십 근처의 미들타운 브릿지가 최근 ‘문재식 하사 추모 다리’라는 공식 이름을 얻었다.

고(故) 제이 문(한국명 문재식·당시 21세) 하사를 기리는 다리 명명식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렸다. 문 하사의 아버지 문영환(72) 씨 등 유족을 비롯해 조 호건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 김성중 필라델피아한인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다리는 호건 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추진됐다. 호건 의원



‘문재식 하사 추모 다리’ 명명식 참석자들

은 문 하사의 이름을 딴 다리 명명 법안을 발의하고, 주 상·하원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1985년생인 문 하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농구선수인 아버지 문씨 등 가족과 함께 어릴 적 미국에 이민했다.

미들타운 타운십에서 성장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미 육군에 입대했다. 당초 미2사단에 배치돼 한국에서 비무장지대(DMZ) 근처에서 근무하다가 2사단이 이라크로 임무지를 이동하면서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2005년에 한 차례 파병된 뒤 귀환했다가 2006년 재파병 됐고, 그해 12월 25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차를 타고 순찰 업무를 하던 중 도로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면서 전사했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봉사자입니다”

이숙향 재독한글학교교장협의회장 “뿌리의식 있는 세계인 육성”

최근 종이문화재단과 ‘K-종이접기’ 세계화 협약을 위해 방한한 이숙향 재독한글학교교장협의회장은 5월 8일 기자와 만나 “한글학교 교사들은 모두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이라면서 “내일의 주역인 한인 차세대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현지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도록 돕는 게 한글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독일 전역에는 33개 한글학교에 200여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며 3천5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에센지역 한글학교 교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부모뿐만 아니라 현지인 학생과 성인들도 학교를 찾고 있다”며 “차세대들이 ‘한국계’라는 뿌리 의식을 갖는 것 못지않게 출신 국가, 인종 등을 따지지 않는 세계시민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모국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글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 중요성도 인식해 체계적인 지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각국 공관 등에 한글학교 또는 재외국민 교육 담당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게 동포청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생긴다”며 “한곳으로 통합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989년 독일로 유학해 베를린공대를 졸업한 뒤 36년째 현지에 거주 중인 그는 2011년부터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숙향 재독한글학교교장협의회 회장

LA한인상의 경제사절단, 한·중 방문… 무역투자 협력방안 논의

김봉현 미국 LA한인상의 회장, 대한상의 및 경북도와 MOU도 체결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 상공인 단체인 로스앤젤레스(LA)한인상공회의소가 17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리고 이달 중순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무역 및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A한인상의는 김봉현 회장과 김경현·김재향·김지나 부회장 등으로 사절단을 꾸려 5월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했다. 이 기간에 중국한국상회한국인회 화동연합회, 향주한국상회한국인회,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상해지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무르면서 대한상공회의소 및 경상북도와 MOU를 맺었다.

특히 대한상의와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해 협력 방안을 살피고, 정·재계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절단은 방한 기간 부산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통대 등도 방문했다.

김봉현 회장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LA한인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한인의 위상을 더 높이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사절단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봉현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부처님 계신 곳’, 영축산과 통도사 부처 진신사리 봉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영축산은 한반도 등줄기인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내리다 경상 남도와 북도 경계 부근에서 힘차게 솟아오른 산군인 영남알프스의 준봉 중 하나다.

석가모니가 설법했던 인도의 영축산과 형세가 닮았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영축산 남쪽 자락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통도사가 자리한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이 있는 곳, 영축산과 통도사이다.

봄비가 내린 3월 초, 영남알프스 정상부에 서설이 내렸다. 해발 고도 1천m 이상의 고산이어서 비 아닌 눈이 내린 것이다. 영남알프스의 중심인 가지산(1,241m)은 물론 해발 1,081m인 영축산 능선에도 발목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하얗게 쌓였다.

영남알프스는 양산, 울산, 밀양, 청도, 경주 접경지에 모여 있는 해발 1천 이상의 고산 무리를 일컫는다. 수려한 산세와 풍광이 유럽의 알프스에 견줄 만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축산과 가지산 외에 천황산(1,189m), 재약산(1,119m), 신불산(1,159m), 고현산(1,034m), 간월산(1,069m), 운문산(1,188m), 문복산(1,014m)이 포함된다.

3월에 서설이 내린 영남알프스

낙동강과 동해를 내다보고 있는 영축산은 기암괴석, 노송,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7부 능선부터 큰 바위들이 성채처럼 불끈불끈 솟아 있다.

함박등에서 1.6km 더 가면 영축산 정상이다. 정상에서는 신불산, 간월재, 간월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광활하게 펼쳐져 능선 타기를 즐기는 산꾼을 유혹한다. 특히 영축산 정상에서 간월재까지 이어지는 산상 고원의 억새밭은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며 ‘알프스’라는 애칭이 허명이 아님을 실증한다.

해인사, 송광사와 함께 한국 3대 사찰로 꼽히는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상은 부처를 상징한다. 석가모니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처 상징물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사리는 신라 시대 자장 율사가 당나라 수도 장안에 유학해 불법을 공부하던 중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받았다고 하는 부처님



가사, 두개골 사리, 손가락뼈 사리, 육신사리 100과 등 성물 중 일부이다.

명문가에 태어났으나 출세를 마다하고 출가해 도를 닦았던 자장은 불교의 계율을 정립하기 위해 646년 통도사를 창건,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짓고, 이 계단에 석가모니 사리와 가사를 봉안했다.

불가에서 계단은 승려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 수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 금강계단에는 부처가 지켜보는 데서 계를 받음으로써 참다운 승려가 되고 계를 다이아몬드처럼 굳건히 지키라는 뜻이 서려있다.

금강계단 한가운데 석종 형식의 사리탑이 있다. 금강계단과 붙어있는 대웅전은 4개 면이 모두 정면의 형식을 갖춘 특이한 건축이다. 금강계단 쪽에 ‘적멸보궁’ 편액이 붙어있고, 시계 방향으로 ‘대웅전’ ‘금강계단’ ‘대방광전’ 편액이 차례로 걸려 있다.

영원토록 불법이 이어질 통도사 금강계단

대웅전 내부에는 사리탑을 바라보고 참배할 수 있도록 금강계단 쪽으로 유리로 된 큰 창이 설치돼 있다. 불상이 없지 않은 불단은 화려하고 장엄하다. 4개 현판 중 ‘금강계단’과 ‘적멸보궁’은 흥선 대원군 친필로 알려져 있다. 사리탑은 보존을 위해 음력 초



2

하루~초삼일, 보름, 지장재일(음력 18일), 관음재일(음력 24일)에 3시간 동안 개방된다.

통도사가 한국 최고 사찰로 자리매김한 것은 불교 예경물 중 가장 존귀한 부처 진신사리를 봉안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석가모니 육신의 일부가 상주하는 금강계단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부처님 가르침을 상징한다.

신라 시대부터 현재까지 1천4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불법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통도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붉은색의 자장매는 수령이 400년에 가까운 노거수이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통도사 전각을 중창할 때인 1600년대 중반에 역대 조사들의 진영을 모신 영각 아래 화려히 피어난 후 매년 이른 봄이면 꽃을 피운다.

전국 유일의 사찰 현충 시설 임진왜란 등 역사의 굴곡마다 민중의 아픔 서려

오랜 연륜을 간직한 통도사에는 당연히 문화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국보인 금강계단과 대웅전, 26건에 달하는 보물을 포함해 국가 지정 문화재 27건, 도 지정 문화재 62건이 통도사에 소장돼 있다.

통도사의 공간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역사의 굴곡마다 민중의 아픔을 함께했다. 6·25전쟁 때는 다친 국군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쓰였다. 통도사는 2021년 제31 육군병원 분원으로, 현충 시설로 공식 인정됐다. 한국 불교가 고수해온 호국불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70여년 전 아픈 병사들이 희망을 품고 기록을 남겼던 전각에는 오늘날 수행과 참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 **▶**



3



4

1. 대웅전 야경 2. 통도사 야경 3. 금강계단 4. 자장매와 오향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중국 동포 민생현장 방문

동포 간담회 · 코리아타운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동포청 주요 정책도 소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후 처음으로 5월 7~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안을 협의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동포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첫날인 7일에는 동포 기업인들과 현지의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8일에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0월 전라북도 · 전주시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개최 방향 등을 점검하고, 각국 동포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사업 설명회를 열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각종 비즈니스 전시회에 바이어 · 미팅 파트너로 참여할 동포 기업인도 발굴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베이징 시내 우리 동포 기업과 왕징 코리아타운을 방문하고, 동포들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했다.

또 한인회, 다문화가족, 한글학교 관계자, 유학생 등 동포 30여 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어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재외동



이기철 청장(앞줄 왼쪽서 일곱 번째)이 5월 8일 베이징 그랜드 메트로파크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청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동포사회 현안을 들었다.

이기철 청장은 "베이징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국 지역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및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지역 재외동포의 호혜적 동반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 · 발전상 체험' 행사 열어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5월 5일~6일 '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 · 발전상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의 정체성을 함양해 모국과 동포사회를 이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 행사에는 30개국에서 110여명의 장학생이 참가했다. 이들은 충남 공주와 전북 익산 및 군산 일대의 백제 문화권을 둘러보았다.



익산 미륵사지를 방문한 장학생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공관장 오찬서 동포정책 협력 당부

재외동포청은 4월 26일 이기철 청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정책 관련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각국 대사와 총영사, 분·관장 등 180여명의 공관장이 참석했다. 이들 공관장은 재외공관장회의의 참석을 위해 최근 방한했다.

이 청장은 영사민원실 개선, 동포단체 지원금 관리강화, 우리 정부 및 재외동포청 정책 홍보, 재외동포 사회 민생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 등에 있어 재외공관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재외동포청의 핵심 사업인 한국의 발전상 교



재외공관장 대상 오찬서 재외동포정책 설명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육 및 해외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거주국 내 한인들의 지위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장들은 각국 한인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관 표준안 보급, 한국어 교사가 부족한 비영어권 지역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사 파견, 입양인 보듬기 강화, 재외공관 무인 민원 증명서 발급기 보급, 한글

학교 교육기자재·교재 배포 시스템 구축, 한글학교 교사 경력 인정 등을 건의했다.

재외동포청 추천 도서



불편한 편의점 1·2

김호연 / 나무옆의자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망원동 브라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유티 있게 그린 경쾌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스릴러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 김호연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로 ‘나무옆의자’에서 출간됐다.

‘망원동 브라더스’에서 망원동이라는 공간의 체험적 지리지를 잘 활용해 유쾌한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던 서울의 오래된 동네 청파동에 대한 공감각을 생생하게 포착해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150만부 판매 돌파, 주요서점 80주 연속 종합베스트 TOP10, 전 세계 22개국 판권 수출, 전국 73개 도시 선정 올해의 책, 2022년 한 해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한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K-힐링소설의 대표작으로 독자의 선택과 입소문이 만든 경이로운 밀리언셀러다.

한인 차세대 정체성 함양에 한국어가 중요한 이유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는 게 늘 어려웠습니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모국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체성은 고정돼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한인 청년세대에 한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내 자신이 이민 한인 1세대 혹은 재외동포 2세대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맞으면서 저의 정체성은 한국계 미국인 1세대 2세의 중간 어딘가에 자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제가 편하다고 느끼는 곳인 한인 커뮤니티에 스스로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해당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와 정체성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것처럼,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인 청년 2세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주류 문화와 사회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여깁니다. 많은 재외동포가 영어 등 다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언젠가는 재외동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가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한민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부교수 겸
아시아국제영화제 위원

미국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이란 점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돌아켜보면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는 사실이 저에게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큰 자선이 됐으며, 한국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해외 한인 학교와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협력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어가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절실함을 느낌으로써 역사와 문화 등과 같은 다른 분

야도 확장도 가능합니다. 한국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선진화하고 있고, 한류의 세계화로 한민족 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중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능통함의 중요성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북미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특권화 경향을 지양하고 중남미 등을 비롯한 다른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혼혈 디아스포라 개인들의 주체성이 한민족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은 고국과 단절된 서구화된 한국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더 깊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한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민족적 유대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공동체적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하고 기여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 한인들 사이에 보다 강한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전 세계
재외동포의 대변자



@overseas_koreans_agency



facebook.com/oka202365



@OKAKOREA